신유형 정복이
1등급을 좌우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계속 신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 문제에서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까지
점점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신유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는 신유형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 풀이에 적용할 개념을 찾고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주어
신유형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등급 고난도 문제들은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발상'과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입체 첨삭 해설 시스템으로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와 매력적 오답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수험장 극비 노트]에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그림, 도표 등으로 수록하였고,
나만의 비법을 노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1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23		월 일	월 일
2	24~42		월 일	월 일
3	B 01~26		월 일	월 일
4	C 01~31		월 일	월 일
5	D 01~05, E 01~06		월 일	월 일
6	F 01~24		월 일	월 일
7	25~45		월 일	월 일
8	G 01~31		월 일	월 일
9	H 01~32		월 일	월 일
10	33~52		월 일	월 일
11	I 01~28		월 일	월 일
12	29~54		월 일	월 일
13	J 01~25		월 일	월 일
14	K 01~31		월 일	월 일
15	32~54		월 일	월 일
16	L 01~38		월 일	월 일
17	39~44 M 01~23		월 일	월 일
18	N 01~41		월 일	월 일
19	O 01~43		월 일	월 일
20	P 01~39		월 일	월 일
21	Q 01~39		월 일	월 일
22	40~53, R 01~08		월 일	월 일
23	S 01~43		월 일	월 일
24	T 01~39		월 일	월 일
25	U 01~23		월 일	월 일
26	V 01~24		월 일	월 일
27	W 01~22, X 01~15		월 일	월 일
28	Y 01~27, Z 01~47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1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생활과 윤리 활용법+α

❶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 선택지로 개념을 꼼꼼히 체크!

- 수능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테스트합니다.
- 출제 2024 대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을 알려줍니다.



❷ 1, 2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

-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과 해당 문제를 푸는 단서, 발상,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 간단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특강을 읽으면서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❸ 개념별 기출 문제 풀이로 수능 실전력을 높이자!

- 수능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선택지의 문장을 파악합니다.

❹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는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풀어 보세요.



- 실제 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풀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 모의고사를 푼 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세요.

❺ 1등급, 2등급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로 마스터하세요!

-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 풀이의 '발상',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왜 틀렸나', '시간 단축 tip', '문제풀이 tip'을 통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줍니다.

❻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해설에 제시된 정답의 단서를 파악하고, 함정, 주의, 꿀팁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마세요.

❼ [수험장 극비 노트]로 수험장 1등급 비법을 꼭 챙기세요!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비법 노트'에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쓰고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세요.

단원별 핵심 개념 + 최신·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1.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2. 해설과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3. 긴 시간 혼자서 공부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해 보세요!
4. 강의를 통해 어려운 분배적 정의, 동·서양의 자연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차 례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1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B 동양 윤리적 접근 2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

C 서양 윤리적 접근 3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9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4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4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0
동아리 소개 / 서울대학교 커피 동아리 52

Ⅱ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5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6

F 죽음과 윤리 5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6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61

G 생명 윤리 7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7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76

H 사랑과 성 윤리 8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8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8

Ⅲ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0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0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5

J 사회 윤리와 정의 11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1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2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3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3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32
1등급 대비 문제 144

L 교정적 정의 [2등급 대비] 150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52
2등급 대비 문제 특강 15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4
2등급 대비 문제 165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16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7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1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2등급 대비] 17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79
2등급 대비 문제 특강 18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81
2등급 대비 문제 188

Ⅳ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19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9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97

P 정보 사회와 윤리 20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1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11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22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23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5
1등급 대비 문제 237

R 환경 문제와 윤리 24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5

Ⅴ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24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5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1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26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5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27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7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77

V 종교와 윤리 28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5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29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5

X 민족 통합의 윤리 30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3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30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10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2등급 대비] 31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18
2등급 대비 문제 특강 31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20
2등급 대비 문제 330

Special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3 실시 3월 학력평가 334
02회 2023 실시 4월 학력평가 338
03회 2023 대비 6월 모의평가 342
04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346
05회 2023 실시 7월 학력평가 350
06회 2023 대비 9월 모의평가 354
07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358
08회 2023 실시 10월 학력평가 362
09회 2023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66
10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70

빠른 정답 찾기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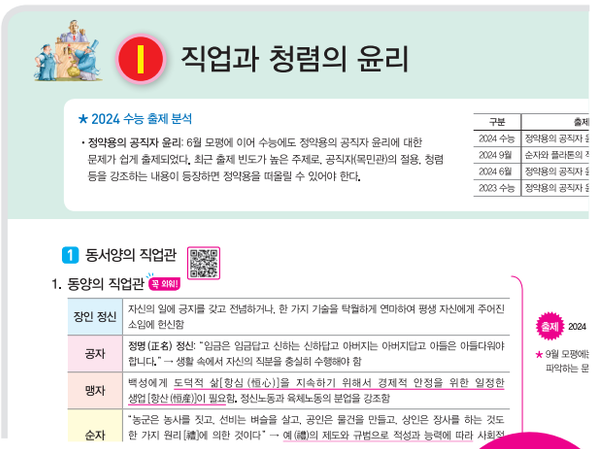
중요 · 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 +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으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 + 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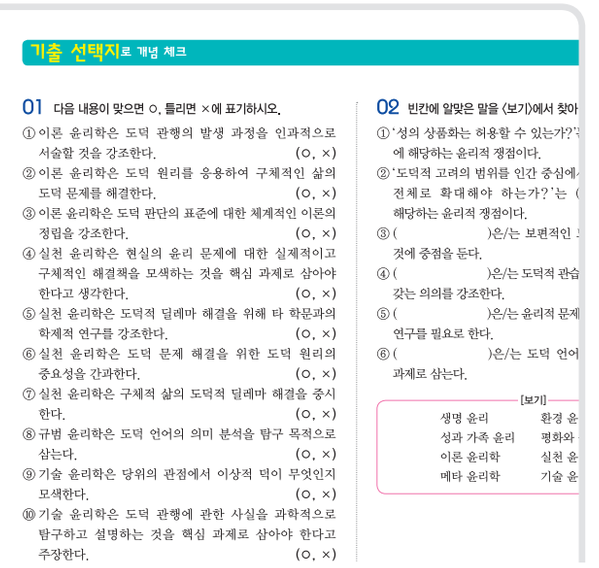
- **출제 경향 분석:** 2024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4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 **QR코드:** 단원별 핵심 개념 + 문제 풀이법 동영상 강의



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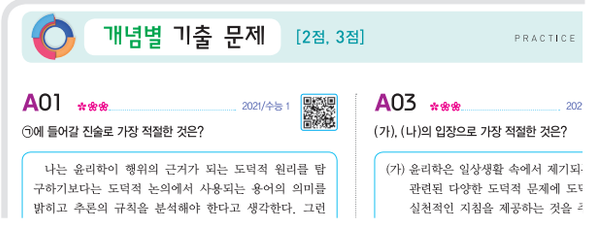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동영상 강의
개념+중요 문제
QR코드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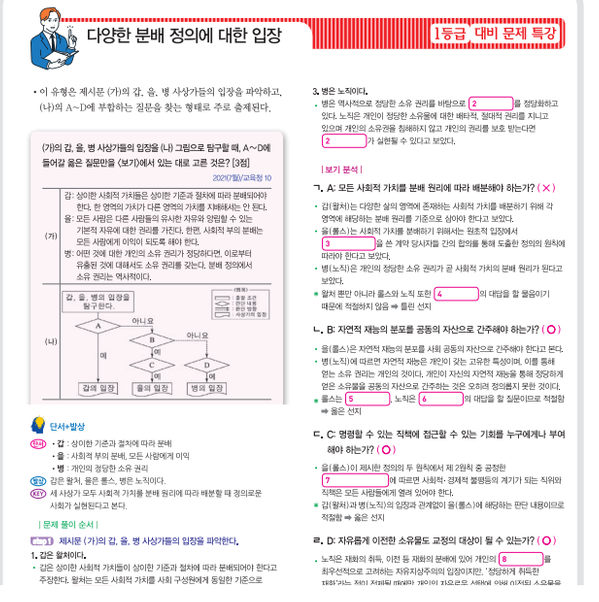
- 난이도 : ★★★ – 상, ★★☆ – 중, ★☆☆ – 하, 1등급, 2등급

- 출처표시 : 수능, 평가원 – 대비연도, 학력평가 – 실시연도
  - 2020 / 수능 20 : 2019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 2020 (6월) / 평가원 20 : 2019년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 2020 (3월) / 교육청 20 : 2020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3 실시 3월 학평 20 : 2023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4 대비 9월 모평 20 : 2023년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4 1등급, 2등급 대비 문제 특강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단서 + 발상, 적용법,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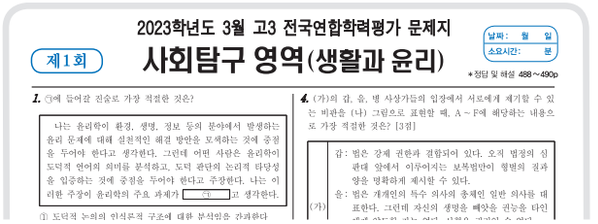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5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수록

실전 대비를 위해 실제 모의고사 원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2023년 시행 7회: 전문항
- 2022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날짜: 월 일
소요시간: 분
* 정답 및 해설 488~4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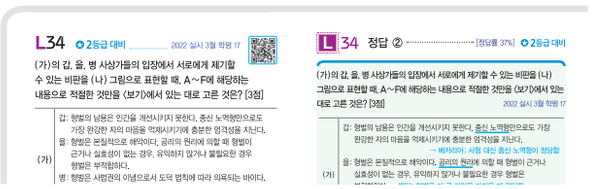
6 1등급 · 2등급 대비 문제와 특별 해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대비, 2등급 대비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1등급 대비 : 정답률이 50% 내외의 1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 2등급 대비 : 정답률이 50~60% 내외의 1, 2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Q48 ✪ 1등급 대비 2024 대비 6월 모평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Q 48 정답 ② [정답률 49%] ✪ 1등급 대비


L34 ✪ 2등급 대비 2022 실시 3월 학평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L 34 정답 ② [정답률 37%] ✪ 2등급 대비

7 [별책 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1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17개 선정
2 문제 풀이 꿀팁
3 나만의 비법 정리

8 입체 첨삭 해설!

문제+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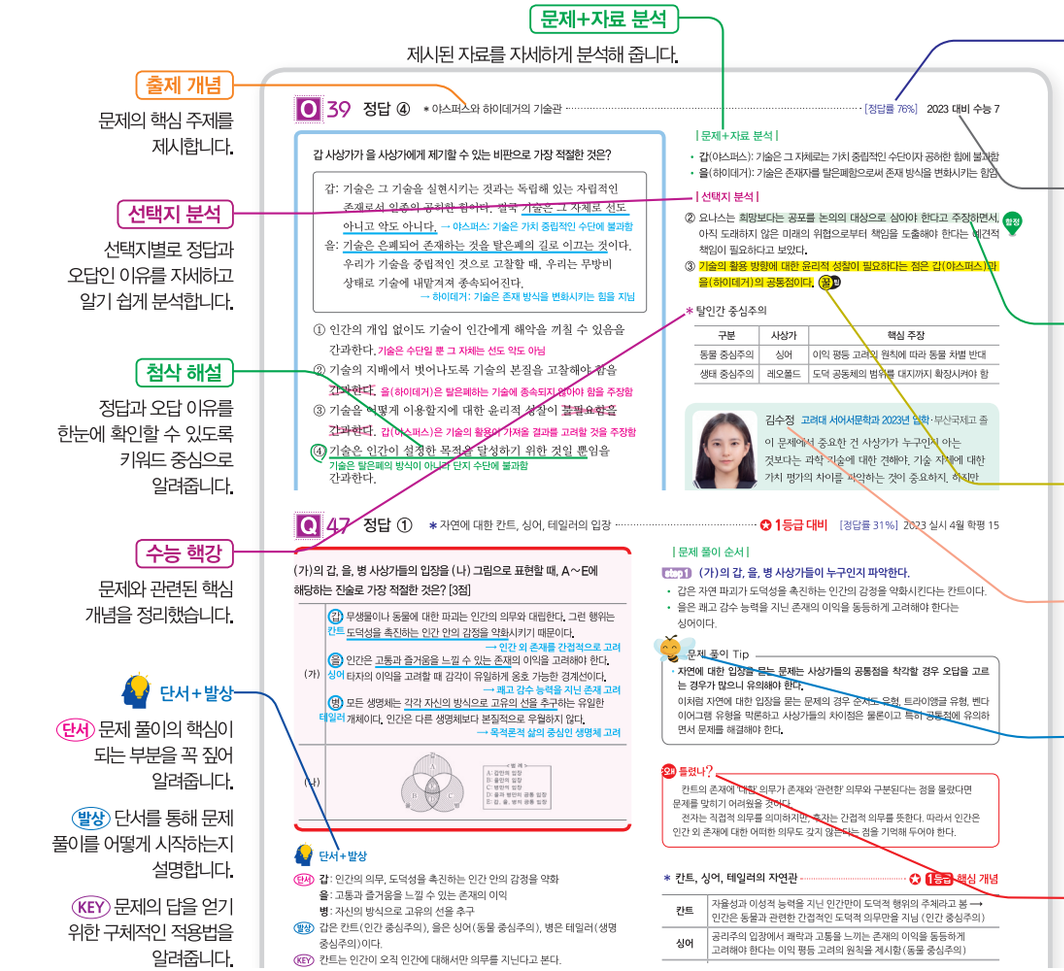
출제 개념
문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선택지 분석
선택지별로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

첨삭 해설
정답과 오답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수능 핵강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꼭 짚어 알려줍니다.
발상 단서를 통해 문제 풀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KEY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Q 39 정답 ④ * 아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술관 [정답률 76%] 2023 대비 수능 7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아스퍼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함
을: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탈은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되어진다. → 하이데거: 기술은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님
①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님
②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 간과한다. 을(하이데거)은 탈은폐하는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함
③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갑(아스퍼스)은 기술의 활용의 가치를 결과를 고려할 것을 주장함
④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기술은 탈은폐의 방식이 아니라 단지 수단에 불과함
| 문제+자료 분석 |
• 갑(아스퍼스): 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자 공허한 힘에 불과함
• 을(하이데거): 기술은 존재자를 탈은폐함으로써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님
| 선택지 분석 |
② 요나스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한다는 예견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③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갑(아스퍼스)과 을(하이데거)의 공통점이다. 공통
* 탈인간 중심주의

구분	사상가	핵심 주장
동물 중심주의	싱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 차별 반대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켜야 함

김수정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2023년 입학 · 부산국제고 졸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상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는 과학 기술에 대한 견해야.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Q 47 정답 ① * 자연에 대한 칸트, 싱어, 테일러의 입장 ✪ 1등급 대비 [정답률 31%] 2023 실시 4월 학평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칸트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인간 외 존재를 간접적으로 고려
을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싱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다. →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고려
병 모든 생명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테일러 개체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고려
(나)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E: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자연 파괴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칸트이다.
• 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이다.
문제 풀이 Tip
• 자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제는 사상가들의 공통점을 착각할 경우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제의 경우 존재론 유형, 트리이앵글 유형, 벤다이어그램 유형을 막론하고 사상가들의 차이점은 물론이고 특히 공통점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틀렸나?
칸트의 존재에 대한 의무가 존재와 '관련한' 의무와 구분된다는 점을 몰랐다면 문제를 맞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자는 직접적 의무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간접적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 외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칸트, 싱어, 테일러의 자연관 ✪ 1등급 핵심 개념

칸트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봄 → 인간은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만을 지님 (인간 중심주의)
싱어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 (동물 중심주의)

단서+발상
단서 갑: 인간의 의무,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
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
병: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
발상 갑은 칸트(인간 중심주의), 을은 싱어(동물 중심주의), 병은 테일러(생명 중심주의)이다.
KEY 칸트는 인간이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정답률
교육청 자료, 기타 기관 공지 자료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시됩니다.

출처
출제된 기관과 시기를 알려줍니다.

함정
함정을 체크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꿀팁
꼭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수험장 생생 체험
선배들이 수험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풀이 비법을 알려줍니다.

문제 풀이 Tip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줍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강민겸 서울 신반포중 교사
이현우 서울 당곡고 교사
한혜정 경기 고촌고 교사
정선우 인천 대인고 교사
조승연 서울 장충중 교사

중요·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정선우 선생님

[감수진]

강대성 서울 대입정보학원
강성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강혜원 서울 중동고등학교
권성현 아산 설화고등학교
김관옥 전주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기경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
김용호 서울 중산고등학교
김윤환 서울 영훈고등학교
김일영 서울 대치청연학원,대치동SNT학원
김지혜 대전 청란여자고등학교
김효정 부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노국종 서울 강동고등학교
박은미 서울 금천고등학교
박진경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성지윤 창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손창균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송남용 성남 숭신여자고등학교
양현철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오진솔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
유영진 부산 센텀중학교
유태진 구리 인창고등학교
유현상 광양 광양제철고등학교
윤정은 대구 황금중학교
이기정 광주 숭일고등학교
이나경 서울 강서고등학교
이동규 서울 수명고등학교
이병구 인천 안남고등학교
이설아 대전 청란여자고등학교
이수진 수원 매원고등학교
이향복 대전 제일학원
임동현 음성 대금고등학교
임종모 속초 설온중학교
장성욱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한빈 군산 한들고등학교
전고은 서울 명지고등학교
차태호 충북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최승규 부산 신정고등학교

문항 배열 및 구성 [1062제+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87제]

❶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87제]

•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❷ 최신 4개년 수능+6, 9월 모평+고3 학력평가 전문항 수록 [560제]

• 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4개년 28회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❸ 새교육과정에 꼭 맞는 수능+6, 9월 모평+고3, 고2 학력평가 문제 수록 [302제]

• 새 수능 출제 기준에 적합한 기출문제들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❹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200제]

• 2023년 7회: 전회차 수록

• 2022년 시행 3회: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수록

[생활과 윤리 수록 문항 구성표]

대비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합계	비고
2024	20	20	20	20	20	20	20	140	새교육과정 전문항 수록
2023	20	20	20	20	20	20	20	140	
2022	20	20	20	20	20	20	20	140	
2021	20	20	20	20	20	20	20	140	
2020	15	16	16	17	18	15	16	113	*새교육과정 선별 수록
2019	13	9	14	11	15	14	17	93	
2018	4	6	11	5	13	6	10	55	
2017	4	1	6	2	4	6	3	26	
2017 이전	13							13	
고2	2							2	
총 문항 수								862	연도별 모의고사 200

2024 대비 6월, 9월 모평+수능

생활과 윤리 문항 배치표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	A 29	A 32	A 26
2	B 22	C 04	C 02
3	C 25	F 32	W 22
4	F 23	P 34	G 12
5	N 39	G 13	P 14
6	M 10	O 07	B 26
7	I 52	N 40	M 12
8	K 47	T 08	T 06
9	L 43	L 44	N 41
10	S 41	Q 49	S 01
11	P 30	B 24	L 32
12	T 17	H 30	I 51
13	O 35	M 23	H 10
14	Z 47	I 16	K 34
15	Q 48	K 41	Q 42
16	G 26	V 15	Y 27
17	U 11	S 12	F 16
18	W 18	Z 30	O 32
19	Y 25	W 20	Z 18
20	H 24	X 03	V 08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 B 동양 윤리적 접근
- C 서양 윤리적 접근
  - 1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 2 덕 윤리적 접근과 도덕 과학적 접근
-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 2024 수능 출제 분석

-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시험에서 대부분 1번 문항으로 출제되며, 두 가지 윤리학을 비교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구분	출제 개념	난이도
2024 수능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
2024 9월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
2024 6월	규범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
2023 수능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

1. 윤리의 의미[1]와 특징

의미	인간의 무리에서 지켜야 할 도리
특징	• 도덕적 행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음 • 도덕적 행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준을 밝히고자 노력함 •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음

2. 윤리학의 구분

(1) **규범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고,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

① 이론 윤리학

의미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윤리학
목적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함
역할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거나 도덕 원리의 근거를 제시함
주요 주제들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등 예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② 실천 윤리학

의미	다양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에 적용하는 윤리학
목적	이론 윤리학을 적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
역할	• 여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해결책을 모색함 예 생명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리학과 생명 과학, 통계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함 • **학제적**[2] **성격**: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함께 탐구함 • **실천적 성격**: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활용하여 삶의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 주제들	생태계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 예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

출제 2024 대비 수능 1, 2024 대비 9월 모평 1, 2024 대비 6월 모평 1

★ 6월 모평에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을 평가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9월 모평에는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수능에는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1] 윤리의 의미

동양	인간 집단이나 무리[倫]와 이치나 도리[理]가 합쳐진 말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뜻함
서양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성품을 뜻함

[2] 학제적
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친 학문상의 영역 및 그와 같은 영역의 연구에 관련된 것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비교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20년 6월 평가원]

↳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천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1년 6월 평가원]

↳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론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시오.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한다. (○, ×)
②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 ×)
③ 이론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한다. (○, ×)
④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⑤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한다. (○, ×)
⑥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
⑦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한다. (○, ×)
⑧ 규범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는다. (○, ×)
⑨ 기술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 ×)
⑩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⑪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 ×)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간과한다. (○, ×)
⑭ 메타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 ×)
⑮ 메타 윤리학은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갖는다. (○, ×)
⑯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강조한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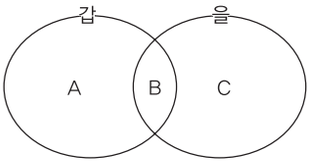
① '성의 상품화는 허용할 수 있는가?'는 (　　)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②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 중심에서 동물, 생명,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가?'는 (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③ (　　)은/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　　)은/는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⑤ (　　)은/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⑥ (　　)은/는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보기]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성과 가족 윤리	평화와 공존 윤리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시오.

[갑: 메타 윤리학, 을: 기술 윤리학]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① 도덕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A / B / C)
②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A / B / C)
③ 특정 시대의 관습, 사회 규범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A / B / C)
④ 도덕규범의 현실적 적용과 구체적 대안 제시를 경시한다. (A / B / C)

정답

01 ① ×(기술 윤리학) ② ×(실천 윤리학) ③ ○ ④ ○ ⑤ ○ ⑥ ×(강조함) ⑦ ○ ⑧ ×(메타 윤리학) ⑨ ×(이론 윤리학) ⑩ ○ ⑪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함)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강조함) ⑭ ×(실천 윤리학) ⑮ ○ ⑯ ○

02 ① 성과 가족 윤리 ② 환경 윤리 ③ 이론 윤리학 ④ 기술 윤리학 ⑤ 실천 윤리학 ⑥ 메타 윤리학

03 ① B ② A ③ C ④ B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QUESTION

A01 ✻❀❀ 2021 대비 수능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A02 ✻❀❀ 2021 대비 9월 모평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① (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② (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③ (나):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⑤ (가), (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A03 ✻❀❀ 2021 대비 6월 모평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①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③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④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⑤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A04 ✻✻❀ 2020(3월)/교육청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② 윤리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 정답 및 해설 2~3p



형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이 유형은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하여, (나) 그림에 적절한 진술인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7월)/교육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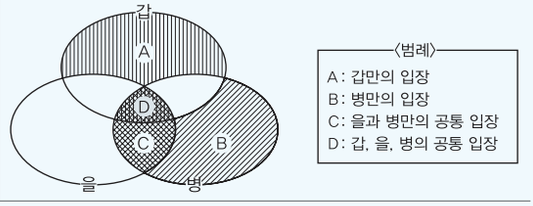
(가)

갑: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다른 선(善)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을: 사형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이바지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와 모든 힘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에 있다.

병: 사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이다.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ㄴ. B: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ㄷ. C: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 가능하다.
ㄹ. D: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엄격한 보복법, 형벌은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
• **을**: 사회 계약, 일반 의지
• **병**: 범죄 억제의 효과, 지속성

발상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이다.

KEY 국가가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베카리아는 부정하였으나, 칸트와 루소는 인정하였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갑은 칸트이다.

•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1] 을 찬성하고 있으며, 범죄자라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갑은 칸트임을 알 수 있다.

step 2 을은 루소이다.

• 사형을 [2] 에 근거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3] 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을은 루소임을 알 수 있다.

step 3 병은 베카리아이다.

• 사형을 반대하며,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4] 의 효과가 높다는 입장임을 종합하면 병은 베카리아임을 알 수 있다.

| 보기 분석 |

ㄱ. A: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

• 칸트는 사형이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루소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이 아니므로 사회 계약에 따라 마땅히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이 [5] 을 위해 맺은 것이므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ㄴ. B: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 칸트는 국가의 살인범에 대한 생명 박탈권을 인정한다.
• 루소는 사회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신도 누군가를 죽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았다.
• 베카리아는 생명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C: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 가능하다. (×)

• 칸트는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루소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형벌을 정당화하며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 베카리아는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형벌은 정당하며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에 있다는 입장이다.

ㄹ. D: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

• 칸트는 형벌이 응보가 아닌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인격을 [6] 이 아닌 [7] 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 루소는 사람들이 형벌의 집행에 동의하는 것은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8] 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의 목적이 범죄의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고 본다.

∴ 정답은 ① ㄱ, ㄴ이다.

☑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사형이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칸트의 입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1 사형 2 사회 계약 3 일반 의지 4 범죄 예방 5 생명 보존 6 목적 7 수단 8 자기 보존

16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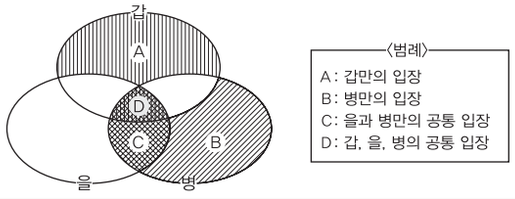
L33 ✪2등급 대비 2020(7월)/교육청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다른 선(善)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을: 사형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이바지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와 모든 힘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에 있다.
병: 사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이다.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ㄴ. B: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ㄷ. C: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 가능하다.
ㄹ. D: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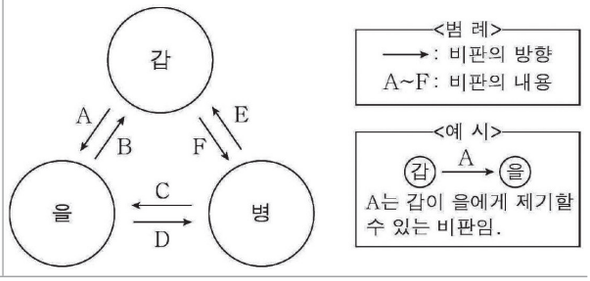
L34 ✪2등급 대비 2022 실시 3월 학평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을: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병: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보기]

ㄱ. A, F: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 및 해설 219~222p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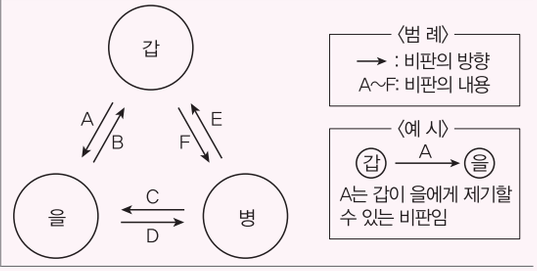
• 이 유형은 제시문 (가)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나)의 그림에 맞는 적절한 비판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수능 16

(가)

갑: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들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다.
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생명체라면 존중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

(나)



① A: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③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④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⑤ C, E: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단서+발상

단서
- **갑**: 일부 동물, 도덕적 권리, 삶의 주체
- **을**: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 **병**: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인간의 도덕성

발상 갑은 레건, 을은 테일러, 병은 칸트이다.

KEY 레건은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기 위한 근거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갑은 레건이다.
-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한다.
- 따라서 갑은 [1]을 주장한 동물 중심주의의 레건이다.

step 2 을은 테일러이다.
-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2]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 인간은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을은 생명 중심주의의 테일러임을 알 수 있다.

step 3 칸트이다.
-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보며, 그 이유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따라서 병은 이성을 결여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3] 도덕적 의무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칸트임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분석 |

① A: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을) 테일러는 인간과 일부 동물뿐 아니라 생명체 전체가 개체 각각이 지닌 [4]이 있다고 본다.
- 따라서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은 (을) 테일러의 입장이므로, (을) 테일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② B: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
- (갑)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로서 [5]인 일부 동물들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따라서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은 (갑) 레건의 입장이므로 (갑) 레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 (을)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과 상관없이 생명을 가진 모든 개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을) 테일러는 [6]에게만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테일러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④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
- (갑) 레건은 어떤 대상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목적적 존재로 보기 위한 근거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든다.
- (병) 칸트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할 것을 강조한다.
- (갑) 레건은 이성이 없더라도 삶의 주체인 개체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므로, 레건이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⑤ C, E: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
- 인간 중심주의뿐 아니라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모두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며 이들 간의 도덕적 지위는 서로 평등하다고 본다.
- 따라서 (병) 칸트가 (갑) 레건과 (을) 테일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정답은 ④이다.**

☑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레건이 일부 동물을 '삶의 주체'로 간주함에 있어 쾌고 감수 능력을 필요충분조건으로 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정답] 1 동물 권리론 2 내재적 3 간접적인 4 고유한 선 5 삶의 주체 6 생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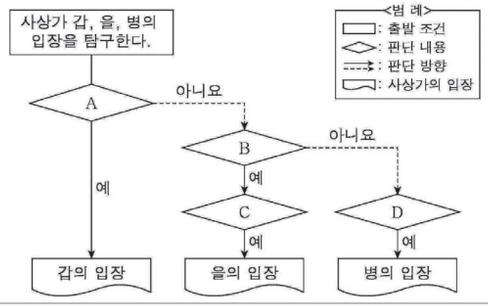
Q38 ✪1등급 대비 2022 실시 3월 학평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을: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병: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며, 종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나)



[보기]

ㄱ. A: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ㄴ. B: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ㄷ. C: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D: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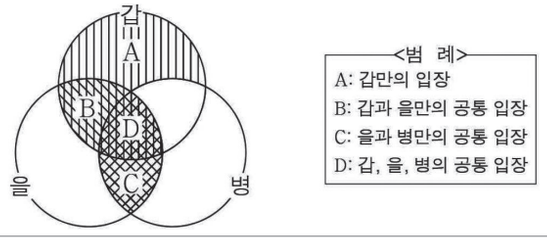
Q39 ✪1등급 대비 2022 실시 4월 학평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지는 토양과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대지 윤리는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다룬다.
을: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나)



[보기]

ㄱ. A: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ㄴ. B: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ㄷ. C: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ㄹ. D: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1 DAY

❖ 정답 및 해설 338~341p

Special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한시간 : 30분]

01회 2023 실시 3월 학력평가

02회 2023 실시 4월 학력평가

03회 2023 대비 6월 모의평가

04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05회 2023 실시 7월 학력평가

06회 2023 대비 9월 모의평가

07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08회 2023 실시 10월 학력평가

09회 2023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10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날짜: 월 일
소요시간: 분

*정답 및 해설 488~490p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고 생각한다.

①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임을 간과한다
② 도덕 추론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임을 간과한다
③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임을 강조한다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객관적 서술임을 강조한다
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침의 제시임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담론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된 진술을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

< 보 기 >

ㄱ.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ㄴ.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
ㄹ.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그러한 앎이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 을: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윤회(輪廻)를 끝낼 수가 없다.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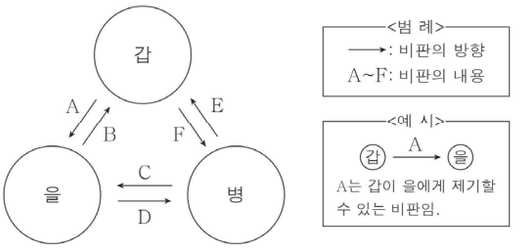
① 갑: 죽음은 고통이므로 죽음을 최고의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갑: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을: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④ 을: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됨을 깨달아야 한다.
⑤ 갑과 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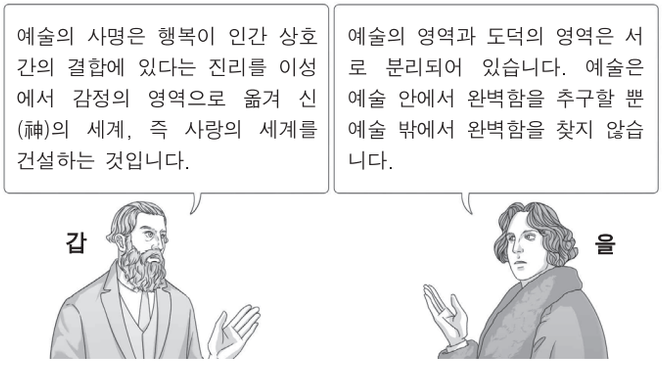
> 갑: 법은 강제 권한과 결합되어 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을: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사형은 권리일 수 없다.
> 병: 법은 일반 의지의 반영이다.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되며,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다.

(나)



① A, F: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③ C: 사형은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④ D: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⑤ E: 형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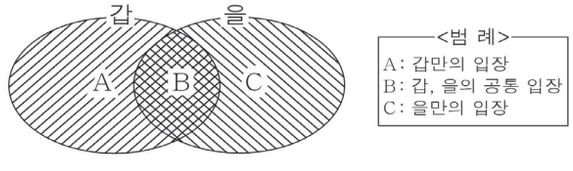
① 갑: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② 갑: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③ 을: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을: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을: 동의합니다. 연명 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로도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갑: 아닙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입니다.
> 을: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도 죽음을 앞당겨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②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비도덕적 행위인가?
③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 시행 방법이 존재하는가?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가?
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한가?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나)	

< 보 기 >

ㄱ. A: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ㄴ. B: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ㄷ. B: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ㄹ. C: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성적 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 (나) 성적 행위는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인격 존중의 의무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와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행된다.

① (가):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② (가): 성적 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나):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④ (나):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한다.
⑤ (가)와 (나):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 을: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보 기 >

ㄱ. 갑: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ㄴ. 갑: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ㄹ. 갑과 을: 국가는 불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 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① 갑: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갑: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③ 을: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을: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차 례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02
B 동양 윤리적 접근 23
C 서양 윤리적 접근 36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52

Ⅱ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55
F 죽음과 윤리 58
G 생명 윤리 81
H 사랑과 성 윤리 97

Ⅲ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23
J 사회 윤리와 정의 150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63
L 교정적 정의 [2등급 대비] 202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233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2등급 대비] 246

Ⅳ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274
P 정보 사회와 윤리 296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316
R 환경 문제와 윤리 357

Ⅴ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361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383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403
V 종교와 윤리 415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427
X 민족 통합의 윤리 438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446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2등급 대비] 460

Special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3 실시 3월 학력평가 488
02회 2023 실시 4월 학력평가 491
03회 2023 대비 6월 모의평가 494
04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497
05회 2023 실시 7월 학력평가 501
06회 2023 대비 9월 모의평가 504
07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507
08회 2023 실시 10월 학력평가 511
09회 2023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14
10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17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A 01 정답 ② *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정답률 90%] 2021 대비 수능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메타 윤리학의 입장 / 메타 윤리학의 탐구 목표 / 실천 윤리학의 입장 / 실천 윤리학의 탐구 목표 / →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실천 윤리학을 평가하는 진술이 들어가야 함)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강조함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분석을 중시함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임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강조함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문제+자료 분석 |

- **제시문의 '나'**: 메타 윤리학 –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 분석 및 도덕적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 검토를 핵심 과제로 삼음
- **'어떤 사람'**: 실천 윤리학 –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음

| 선택지 분석 |

①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메타 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을 윤리학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 따라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윤리학의 주된 임무라고 여기는 실천 윤리학에 대해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 언어의 분석을 중시하지만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⑤ 실천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꿀팁

A 02 정답 ② *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 [정답률 87%] 2021 대비 9월 모평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실천 윤리학
>
>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기술 윤리학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윤리 문제의 해결임 /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설명)하는 것임)

① (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의 입장임

② (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실천 윤리학은 보편적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

③ (나):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이론 윤리학의 입장임

④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의 입장임

⑤ (가), (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은 서로 다른 도덕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여기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부정함

| 문제+자료 분석 |

- **(가) 실천 윤리학**: 실천 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짐. 이를 위해 실천 윤리학은 의학, 법학 등 인접 학문들과 학제적 접근을 시도함
- **(나)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記述)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짐

| 선택지 분석 |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을 하나의 문화적 사실로 여긴다. 그러나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신념이나 관습에 대해 가치 판단을 시도한다.

②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를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③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그러나 기술 윤리학은 도덕 규칙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한 도덕 현상과 관행들을 가치 판단 없이 문화적 사실로 간주한다.

④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⑤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는 부합하지만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천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기술 윤리학은 서로 다른 도덕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여기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부정한다.

A 25 정답 ③ ∗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률 86%] 2018(7월)/교육청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실천 윤리학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윤리학이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메타 윤리학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이러한 윤리학자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

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 검토에 전념해야 함을 간과한다
→ 메타 윤리학의 특징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메타 윤리학의 특징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해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에 대해 할 수 있는 비판임

④ 도덕 문제의 해결보다는 도덕 관행을 기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 기술 윤리학의 특징

⑤ 도덕 원리를 적용해 구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 실천 윤리학의 특징

| 문제+자료 분석 |

- **'나'의 주장**: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실천 윤리학의 입장
- **'어떤 사람들'의 주장**: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삼아야 함 → 메타 윤리학의 입장

⇒ ㉠에는 실천 윤리학의 관점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선택지 분석 |

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 검토에 전념해야 함'은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는 진술로 부적절하다.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함'은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는 진술로 부적절하다.
③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분석과 논증의 타당성 확보를 중시하고, 실천 윤리학은 현실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메타 윤리학이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④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A 26 정답 ① ∗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정답률 93%] 2024 대비 수능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와 기준 탐구
(이론 윤리학)

(나)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도덕적 언어를 논리적 측면에서 분석
(메타 윤리학)

① (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 윤리학)

② (가):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술 윤리학)

③ (나):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실천 윤리학)

④ (나):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 윤리학)

⑤ (가)와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메타 윤리학)

| 문제+자료 분석 |

- **(가) 이론 윤리학**: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력함
- **(나) 메타 윤리학**: '선악'과 같은 규범적 속성이 실재하는지, 그리고 실재한다면 인식 가능한지 등을 탐구함으로써 논리적 측면에서 도덕적 개념 분석에 주력함

| 선택지 분석 |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보편적 기준이나 원리를 제시하는 일에 주력한다.
②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일에 주력한다.
③ 실천 윤리학은 법학, 생명 과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과 협력하여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력한다.
④ 기술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이나 문화를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일에 주력한다.
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및 도덕 판단을 도출하는 추론의 형식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일에 주력한다.



문지민 | 2024 수능 응시 · 대구 정화여고 졸

(가)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각 윤리학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해서 외워 두면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F 23 정답 ⑤ ∗ 석가모니와 장자의 죽음관 [정답률 56%] 2024 대비 6월 모평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석가모니): 오온(五蘊)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해탈하지 못하면, 태어남·늙음·병듦·죽음[生老病死]에 대한 두려움을 넘을 수 없다. → 해탈 → 죽음의 두려움 해소
(오온: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을(장자): 삶과 죽음은 명(命)이다. 대자연은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 자연에 순응 → 죽음의 두려움 해소
(명: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

① 갑: 죽음은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苦]이 아니다. (괴로움임)
② 갑: 죽음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관계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벗어나지 않음)
③ 을: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기(氣)는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함)
④ 을: 죽음은 천명(天命)에 따른 결과이므로 태연해서는 안 된다. (태연해야 함)
⑤ 갑과 을: 죽음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 (갑(석가모니): 연기법, 을(장자): 도(道))

오답 틀렸나?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해체되거나 흩어진다고 주장한 에피쿠로스, 장자 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석가모니는 죽음을 오온의 해체로 보았지만, 여전히 죽음을 고통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을 몰랐다면 매력적인 오답에 속았을 것이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석가모니): 인간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해탈해야 함
- **을**(장자): 생사를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命]으로 받아들여야 함

| 선택지 분석 |

① 갑(석가모니)은 죽음을 오온의 해체라고 보지만 여전히 죽음을 태어남, 늙음, 병듦과 더불어 괴로움으로 본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팔고(八苦), 즉 여덟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다. 팔고란 생로병사의 4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고통, 무엇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에서 비롯한 고통을 일컫는다.
그런데 죽음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다. 연기법을 자각함으로써 해탈하면 비로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갑(석가모니)은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주장한다. 생겨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므로, 죽음도 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③ 을(장자)은 삶과 죽음을 기가 순환하는 과정으로 본다. 기가 모이면 삶이 생겨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을 맞이한다. 기의 순환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자연의 흐름이므로,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기도 다시 순환하여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진다.

④ 을(장자)은 삶과 죽음이 자연의 이치에 따른 운명이므로 죽음을 애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태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석가모니)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연기법을 자각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을(장자)은 생사의 순환이 자연의 도(道)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태어남과 죽음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갑(석가모니), 을(장자)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F 24 정답 ③ ∗ 석가모니와 장자의 입장 [정답률 81%] 2022 실시 4월 학평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無明)에 덮여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 석가모니: 무명 → 생사를 윤회 → 괴로움을 겪음

을: 기(氣)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쉬게 하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 → 장자: 기의 모임과 흩어짐 → 생사의 순환 → 변화에 순응

① 갑: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해야 한다. (깨달음)
② 갑: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한다. (해탈하기)
③ 을: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을(장자)은 생사는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자연적 과정임을 강조함)
④ 을: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⑤ 갑, 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 (갑(석가모니)은 죽음을 고통으로, 을(장자)은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봄)

| 문제+자료 분석 |

- **갑** 석가모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명의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하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반복적으로 겪음.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됨.
- **을** 장자: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적 과정임. 삶과 죽음의 변화를 자연의 변화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됨.

| 선택지 분석 |

① 갑(석가모니)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석가모니)은 삶과 죽음을 고통으로 간주하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은 윤회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반복하여 겪는다고 본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물의 실상을 자각함으로써 해탈해야 한다.

③ 을(장자)은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자연적인 변화 과정이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순환 과정에 있으므로 양자를 분별할 수 없다.

④ 을(장자)은 삶과 죽음을 기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의 변화 과정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과정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갑(석가모니)은 죽음을 인간이라면 겪어야 할 고통으로, 을(장자)은 죽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자연적인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죽음은 슬퍼하거나 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죽음을 애도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은 공자 등 유교 사상가들에 해당한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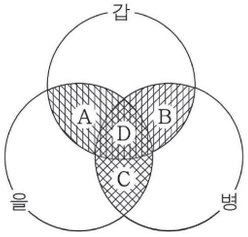
(가)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의 원칙 제시)

을: 정치 공동체에서 부(富)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왈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제시)

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노직
(최소 국가를 주장하며,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제시)

(나)



A: 롤스○, 왈처○, 노직×
B: 롤스○, 왈처×, 노직○

<범 례>
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C: 롤스×, 왈처○, 노직○
D: 롤스○, 왈처○, 노직○

[보기]

ㄱ. A: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롤스○, 왈처○, 노직×

ㄴ. B: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 왈처○, 노직○

ㄷ. C: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롤스○, 왈처×, 노직×

ㄹ. D: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롤스○, 왈처○, 노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입장

사상가	정의로운 분배	특징
노직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님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왈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됨 •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함

| 문제+자료 분석 |

- 갑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 하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봄
- 을 왈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봄
- 병 노직: 개인이 취득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때 정의롭다고 봄

| 보기 분석 |

ㄱ. 롤스와 왈처만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왈처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 시행이 분배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가령 복지 분야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국가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왈처는 복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경계했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함정

ㄴ.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였으며, 왈처의 경우에도 한 영역에서의 지위가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것을 주장한다. 노직 또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본다.

ㄷ. 왈처와 노직의 입장이 아니다. 왈처는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되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ㄹ.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는 분배의 결과 보다는 분배를 위한 절차적 정의에 관심을 둔다. 자유 지상주의자인 노직은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왈처 또한 국가에 의한 단순 평등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정의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 풀이 Tip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 유형은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보기>를 정확하게 진위 판별하여 정답을 고르는 것을 연습 해야하지만, 간혹 헷갈리는 진술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하고 익숙한 선택지를 고르고 그것을 제외(혹은 포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ㄷ'이 노직의 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익숙한 내용이다. 노직은 소유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택지이므로, 답은 ①번(ㄱ, ㄴ)과 ②번(ㄱ, ㄹ) 선택지로 좁혀진다. ㄱ은 공통된 진술이므로, ㄴ과 ㄹ을 먼저 확인해보자.

특히, ㄹ은 세 사상가 모두 '균등 분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중 가장 확실한 내용과 선택지 조합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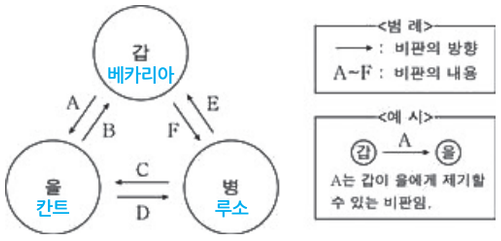
(가)

갑 베카리아: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살인자의 사형 장면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가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는 것에서 생겨난다. →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

을 칸트: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을 수단이나 물권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 사형은 응분의 형벌

병 루소: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계약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한 사형

(나)



① A(B):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됨을 간과한다.

② B: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님을 간과한다. (을(칸트): 죄책감을 덜어 줌)

③ C와 E: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야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갑(베카리아): 형벌은 범죄 억제력을 증진할 때 정당화됨)

④ D: 형벌의 법칙은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전제로 하는 정언 명령임을 간과한다. (을(칸트): 형벌은 다른 것을 위한 한낱 수단 ×)

⑤ F: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됨을 간과한다. (갑(베카리아): 형벌은 가능한 한 잔혹해서는 안 됨)

| 문제+자료 분석 |

- **갑**(베카리아): 사형은 인간 정신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만, 종신 노역형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임
- **을**(칸트): 사형은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임
- **병**(루소):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함

| 선택지 분석 |

① 을(칸트)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갑(베카리아)은 형벌이 산출할 이익을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칸트)은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살인자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갑(베카리아)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이 양도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③ 병(루소)에 따르면 살인자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자이므로 적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야 한다.
참고로 갑(베카리아)은 시민들이 살인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낄 때 범죄 억제력이 증진되며, 바로 이러한 효과가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꿀팁

④ 을(칸트)은 형벌이 사회적 이익과 같은 다른 것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범법 행위에 대한 응보의 대가로 부과되는 정언 명령이라고 본다.

⑤ 갑(베카리아)은 법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순화시켜야 하는데,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 비교

루소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자기 생명 희생에 동의한 것
칸트	**응보주의 관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
베카리아	생명을 위임(양도)하는 것은 사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종신 노역형도 사형만큼 사회 방위를 수행할 수 있음



L 41 정답 ④ ····· [정답률 24%] ✪ 2등급 대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 대비 6월 모평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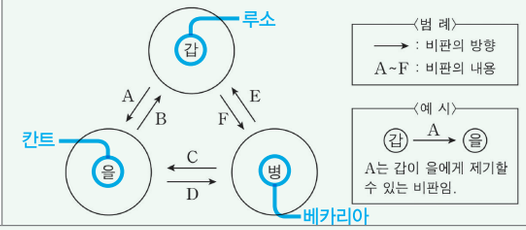
(가)

갑: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루소 (직접 민주주의)

을: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칸트 (응보주의)

병: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 → 베카리아 (범죄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함)

(나)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를 형벌권의 기초로 봄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단서+발상

단서 갑: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을: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병: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

발상 갑은 루소(사회 계약적 관점), 을은 칸트(응보주의적 관점), 병은 베카리아(공리주의적 관점)이다.

KEY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형벌이라고 보지 않았다.

출제 개념: 루소, 칸트, 베카리아의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1. 갑은 루소이다.
- 갑은 제시문에서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갑은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주장한다.
- 그리고 갑은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루소임을 알 수 있다.

2. 을은 칸트이다.
- 을은 제시문에서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을은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형벌에 대해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칸트이다.

3. 병은 베카리아이다.
- 병은 제시문에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베카리아이다.

step 2 (나) 그림에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한다.

1. 갑, 을, 병의 입장을 정리한다.
- 제시문 분석을 통해 갑, 을, 병의 사상가가 각각 루소, 칸트, 베카리아임을 알 수 있다.

2. (나) 그림의 A ~ F이 누가 누구에게 제기하는 비판인지 정리한다.
-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이므로, 각 사상가의 입장에서 다른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을 생각해 본다.

| 선택지 분석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 칸트는 응보주의를 주장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칸트는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와 형벌의 비례 관계를 강조한 사상가로 유명하다.
- 베카리아는 형벌의 크기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베카리아도 이 비례 관계를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 갑(루소)은 살인자는 생명 보존의 계약을 위반한 자이므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 칸트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지만,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므로 얼핏 '사형은 잔혹한 형벌'이라고 비판했을 것으로 넘겨짚기 쉬운 매력적인 오답이다.
-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했다. 즉 가장 강도가 강한 사형은 보았다.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 병(베카리아)은 형벌의 기초를 사회 계약에서 찾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 을(칸트)은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 병(베카리아)는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갑(루소)은 계약 당사자들이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고,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므로 사형이라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답은 ④이다.

오! 틀렸나?
베카리아가 사형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만 떠올리고 정답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지속적으로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범죄 예방과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 비교 ····· ✪ 2등급 핵심 개념

루소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자기 생명 희생에 동의한 것
칸트	**응보주의 관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
베카리아	생명을 위임(양도)하는 것은 사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종신 노역형도 사형만큼 사회 방위를 수행할 수 있음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 롤스: 정의의 원칙 혹은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안정시키는 행위이다.
ㄷ.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없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정의의 원칙,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발상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KEY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방도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롤스이다.

step 2 〈보기〉에서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고른다.

- ㄱ~ㄹ 중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고른다.

| 보기 분석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이나 정책이 사회 협동체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다수자에게 알리게 된다. 꿀팁
-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이나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널리 알리는 행위가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기여한다. 비록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 ㄱ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한 행위이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비록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라도 대체로 정의의 원칙이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이다.

✻ ㄴ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ㄷ.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함정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부 법이나 정책이다.
- 다만, 어떤 법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차등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행하기는 어렵다.

✻ ㄷ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ㄹ.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특정한 종교적 교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양심적 거부와 달리,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적 청원 행위이다.
- 하나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교리와 양심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불복종은 특정 종교적 교설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불교도에게 기독교도의 교리를 강요할 수는 없다. 종교적 신념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 ㄹ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은 ② ㄱ, ㄷ이다.

오! 틀렸나?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와 달리 정치적 청원 행위의 일종이다. 이 점을 몰랐다면 종교적 교설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 비교 ✪ 2등급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	양심적 거부
•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 행위 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한 고용 차별법에 반대하는 것	•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 •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 • 종교적 원리나 다른 원리에 기초한 행위 예 평화주의자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는 것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비폭력적, 처벌 감수)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 →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진실한)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위법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 결과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단서+발상

단서 법에 대한 충실성, 공통된 정의감
발상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KEY 롤스는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시민 불복종의 목적으로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에서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을 바꾸려고 행하는 불복종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본다. 소수자는 '공통된 정의감'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을 통해 다수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할 것을 숙고하도록 요구한다.
- 롤스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하고자 시민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자에게 공공적으로 알리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를 통해 다수자는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강요받는다.
- 한편,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저지르는 위법 행위이므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step 2 〈보기〉의 ㄱ~ㄷ이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파악한다.

| 보기 분석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비록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함으로써 불복종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시민 불복종을 비폭력적으로 실시하고 그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행위임을 보여 주는 데 기여한다. 소수자가 양심적으로 시민 불복종에 임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감행한다면 소수자가 진실하고도 진지하게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고자 시민 불복종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자에게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 ㄱ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록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명백히 위법적이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행해질 뿐 아니라 불복종으로 인한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실시된다. 꿀팁
- 또한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인 질서의 토대를 구성하는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 ㄴ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어떤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그 법이나 정책의 부당함을 다수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 물론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시민 불복종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이 결과적으로 부정의한 법을 변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도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의 변혁을 목표로 행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ㄷ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① ㄱ이다.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 ✪ 2등급 핵심 개념

-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부정의에 불복종하는 것이어야 함
  (예: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 ×)
-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예: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극심한 무질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음)



문지민 | 2024 수능 응시 · 대구 정화여고 졸

제시문 첫째 줄에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고 해서 보기 ㄴ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엄연한 불법 행위인 동시에 도덕적인 행위로 보았어. 따라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는 시민 불복종을 행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야. 사상가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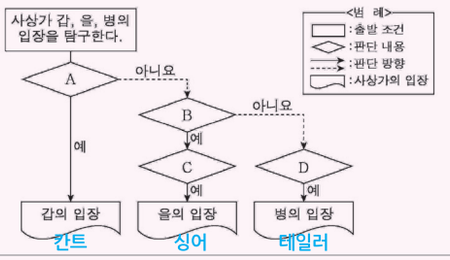
(가)

갑 칸트: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 인간 외 존재와 관련한 간접적 의무 주장

을 싱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種) 차별주의를 피하면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 도덕적 지위 부여의 기준으로 쾌고 감수 능력 주장

병 테일러: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 고유한 선을 가진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 주장

(나)



[보기]

ㄱ. A: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갑(칸트) / 인간 외 존재는 수단적 가치 ○)

ㄴ. B: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을(싱어) / 식물 차별 ○)

ㄷ. C: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을(싱어) / 동물 이용이 이로울 때)

ㄹ. D: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병(테일러) / 목적론적 삶의 중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동물은 단지 수단, 간접적 의무
을: 쾌고 감수 능력
병: 목적론적 삶의 중심

발상 갑은 칸트(인간 중심주의), 을은 싱어(동물 중심주의), 병은 테일러(생명 중심주의)이다.

KEY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 외 존재는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주장한 칸트이다.
- 을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으로 '쾌고 감수 능력'을 내세운 싱어이다.
- 병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 테일러이다.

step 2 ㄱ~ㄹ이 각각 A~D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A에는 갑이 긍정, 을과 병이 모두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B에는 을이 긍정, 병이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C에는 을이 긍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D에는 병이 긍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

- 갑(칸트)은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인간 외 존재는 수단적 가치를 가지므로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꿀팁
- 을(싱어)은 인간을 포함하여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반면, 식물은 수단적 가치만 갖는다.
- 병(테일러)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 세 사상가 모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나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다만 각 생명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 ㄱ은 갑(칸트), 을(싱어), 병(테일러)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

- 을(싱어)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 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등하기 때문이다.
- 싱어에 따르면 식물처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은 존재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식물과 같은 생명체를 인간이나 동물과 차별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 병(테일러)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ㄴ은 을(싱어)이 부정, 병(테일러)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을(싱어)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동물 실험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동물 실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ㄷ은 을(싱어)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병(테일러)은 생존, 성장, 번식 등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체들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간주한다. 각 생명체는 저마다 고유의 선을 갖는다.
- 그런데 만약 어떤 개체가 고유의 선을 갖지 않는다면, 즉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개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의자처럼 생명이 없는 개체는 스스로 성장을 하거나 번식할 수 없으므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체라는 개념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함정

✻ ㄹ은 병(테일러)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D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③ ㄷ, ㄹ이다.

왜 틀렸나?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본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는 하지만, 인간 외 존재들도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칸트, 싱어, 테일러의 자연관 ····· ✪ 1등급 핵심 개념

칸트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봄 ⟶ 인간은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만을 지님(인간 중심주의)
싱어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동물 해방론을 주장함 ⟶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함(동물 중심주의)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 ⟶ 자기의 생존·번식 등의 목적을 추구하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임(생명 중심주의)

Q 42 정답 ② ∗ 자연에 대한 칸트, 싱어, 레오폴드의 입장 ✪ 1등급 대비 [정답률 49%] 2024 대비 수능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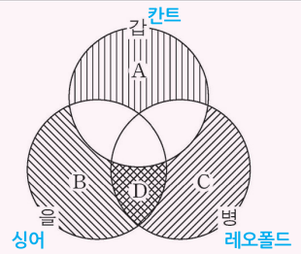
(가)

갑 칸트: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 동물 학대는 간접적 의무 위반

을 싱어: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 동물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병 레오폴드: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 생명 공동체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간접적 의무에 해당)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갑(칸트): 인간, 을(싱어): 인간, 동물)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C 을(싱어): 인간은 식물보다 우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 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
- 병: 대지, 생명 공동체

발상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레오폴드이다.

KEY 싱어는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지 않은 식물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1. 갑은 칸트이다.
- 갑은 동물을 학대하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른 존재와 관련한 의무와 구분한다. 인간은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가질 뿐, 동식물이나 자연 등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지 않는다. 동물 학대나 자연 훼손이 잘못된 까닭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동정심 등이 약화되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칸트이다.

2. 을은 싱어이다.
- 을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따라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쾌락, 이익, 고통 등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은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을은 싱어이다.

3. 병은 레오폴드이다.
- 병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옳다고 본다.
- 레오폴드는 대지를 경제적인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대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지의 안정성을 위해서 개체를 희생하는 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병은 레오폴드이다.

step 2 〈보기〉의 내용이 (나) 그림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 갑(칸트)은 동물 학대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간접적 의무를 위반한다고 본다. 동물 학대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 을(싱어)은 동물 학대 금지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동물이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물 학대 금지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ㄱ은 갑(칸트)만이 긍정하므로 A에 해당한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본다. (함정)
- 병(레오폴드)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ㄴ은 갑(칸트), 을(싱어), 병(레오폴드)이 모두 부정하므로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태계 자체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ㄷ은 병(레오폴드)만이 긍정하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렇지 못한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 ㄹ은 병(레오폴드)만이 긍정하므로 D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② ㄱ, ㄷ이다.**



문지민 | 2024 수능 응시 · 대구 정화여고 졸

보기 ㄴ은 싱어가 부정할 진술이라 틀렸는데 여기서 동물 같은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도덕적 행위자'가 인간을 의미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ㄷ은 생태계와 개별 생명체 둘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세 사상가 중 생태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사상가는 레오폴드밖에 없지. 시험칠 때 '뿐만 아니라'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맸는데 조사까지 꼼꼼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해.

Q 43 정답 ③ ····· [정답률 52%] ✪ 1등급 대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2 대비 9월 모평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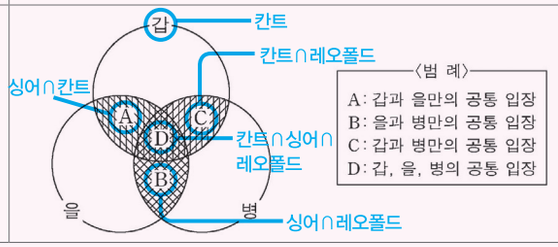
(가)

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 칸트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 자신을 위해서라고 봄
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

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
싱어는 인간의 이익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봄
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 차별주의적 태도이다.
→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싱어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대지 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확대함
→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 레오폴드

(나)



[보기]

ㄱ. A: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ㄴ. B: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ㄷ. C: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ㄹ. D: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이익 평등 고려 원칙
병: 대지 윤리, 공동체

발상 갑은 칸트(인간 중심주의), 을은 싱어(동물 중심주의), 병은 레오폴드(생태 중심주의)이다.

KEY 칸트, 싱어, 레오폴드는 모두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출제 개념: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을 파악한다.

1. 갑은 칸트이다.
- 제시문을 종합해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갑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을은 싱어이다.
- 을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싱어임을 알 수 있다.

3. 병은 레오폴드이다.
- 병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확대한 레오폴드임을 알 수 있다.

step 2 벤다이어그램의 A~D에 대한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자연을 인간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싱어에 대한 판단**: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고통을 느끼는 동물 이외의 자연에 대해 인간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레오폴드에 대한 판단**: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물론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생들은 마치 레오폴드가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가 반대하는 것은 자연을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를 통해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 심미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ㄱ 선지에 대한 판단은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이다. → A(칸트와 싱어만의 공통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ㄴ. B: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 **칸트의 입장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 **싱어에 대한 판단**: 싱어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이성이 아닌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레오폴드에 대한 판단**: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는 전일론의 관점에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성적 능력의 보유 여부를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레오폴드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ㄴ 선지에 대한 판단은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이다. → B(싱어와 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다.

ㄷ. C: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일지라도 인간을 제외한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레오폴드에 대한 판단**: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강조하는 전일론의 관점이므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생태계의 구성원 중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마땅히 그들도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 ㄷ 선지에 대한 판단은 칸트 ○, 레오폴드 ×이다. → C(칸트와 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ㄹ. D: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는 동물에게 지나치게 잔혹할 경우에 반대하는 것이다.
- **싱어에 대한 판단**: 싱어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는 부분에만 집착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택지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이므로 만일 동물에게 끼치는 해가 아주 미약하고, 인간에게 가져올 이익이 매우 크다면 제한적으로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레오폴드에 대한 판단**: 레오폴드는 동물 개체에 대한 존중보다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즉 개체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만일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동물에게 해를 끼쳐야 한다면 레오폴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ㄹ 선지에 대한 판단은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이다. → D(칸트, 싱어,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다.

✪ 정답은 ③이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 인간에 대한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

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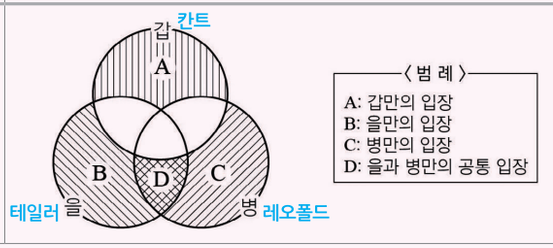
을 인간에게 도덕적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생명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체 존중

테일러

병 인간은 대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다. 대지를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 도덕적 고려 대상을 대지로 확장

레오폴드

(나)



[보기]

ㄱ. A: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갑(칸트),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공통 입장

ㄴ B: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차이점

ㄷ C: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레오폴드)만 무생물을 도덕적 존중 대상으로 봄

ㄹ D: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갑(칸트): 오직 인간만 도덕적 지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을: 생명체, 고유의 선
병: 대지, 생명 공동체, 사랑과 존중

발상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KEY 테일러, 레오폴드 등이 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식물의 이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1. 갑은 칸트이다.
- 칸트는 동물에 대한 감사와 같은 의무는 직접적으로 볼 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 칸트는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인간 외의 존재들과 관련해서는 간접적 의무가 성립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옳지 않은 까닭은 그로 인해 동정심이 약화되어 인간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2. 을은 테일러이다.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니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성장, 번식 등 저마다의 목적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3. 병은 레오폴드이다.
- 레오폴드는 대지를 한낱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생명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레오폴드는 인간을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하며, 대지를 한낱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step 2 〈보기〉의 내용이 (나) 그림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ㄱ의 내용이 갑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ㄴ의 내용이 을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ㄷ의 내용이 병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ㄹ의 내용이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인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갑(칸트)은 식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생존을 위해 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식물을 이용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대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지를 한낱 자원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ㄱ은 갑(칸트),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이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 갑(칸트)은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만 생명 공동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명체뿐 아니라 생명 공동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ㄴ은 을(테일러)만의 입장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갑(칸트)은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 중에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없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오직 생명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도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꿀팁

✻ ㄷ은 병(레오폴드)만의 입장이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 갑(칸트)은 이성을 소유하지 않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못하더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동물이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ㄹ은 을(테일러)과 병(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이므로 D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⑤ ㄴ, ㄷ, ㄹ이다.

오답 틀렸나?
테일러나 레오폴드도 식물의 이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님을 몰랐다면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Q 48 정답 ② ∗ 자연에 대한 테일러, 칸트, 레오폴드의 입장 ····· ✪ 1등급 대비 [정답률 49%] 2024 대비 6월 모평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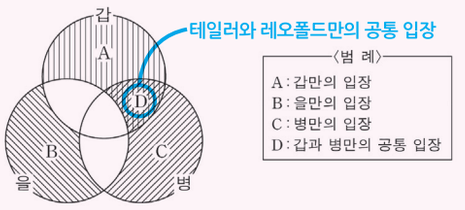
(가)

테일러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 고유한 선을 가진 목적론적 삶의 중심

칸트 을 비록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 버리는 인간의 성향, 즉 파괴적 정신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방해

레오폴드 병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 지위 고려

(나)



[보기]

ㄱ. A: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 소유)

ㄴ. B: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 의무의 대상임)

ㄷ. C: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도덕적 지위 소유)

ㄹ. D: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갑(테일러), 을(칸트), 병(레오폴드)의 공통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병: 생명 공동체

발상 갑은 테일러(생명 중심주의), 을은 칸트(인간 중심주의), 병은 레오폴드(생태 중심주의)이다.

KEY 칸트는 오직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모든 유기체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이러한 존재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 테일러이다.
- 을은 자연을 파괴하는 성향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본 칸트이다.
- 병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흙, 물, 공기 등이 군집해 있는 대지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레오폴드이다.

step 2 ㄱ~ㄹ의 내용이 각 사상가의 입장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

- 갑(테일러)은 동식물에 대한 해악 금지의 의무는 생명체가 가진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고 본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갖는다. 인간은 이러한 생명체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
- 을(칸트)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생명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생명체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의 의무는 생명체의 내재적 선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자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하기도 한다.

∗ ㄱ은 테일러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ㄴ. B: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 갑(테일러)은 이성적 삶의 주체가 모든 생명체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을(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삶의 주체는 오직 이성적 삶의 주체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즉, 이성적 삶의 주체를 제외한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적 삶의 주체를 제외한 생명체와 관련한 의무는 성립한다.
- 칸트가 '존재에 대한 의무(직접적 의무)'와 '존재와 관련한 의무(간접적 의무)'를 구분한다는 점을 정리해 두면 좋다. 꿀팁
- 병(레오폴드)은 이성적 삶의 주체가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ㄴ은 테일러와 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ㄷ. C: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

- 갑(테일러)은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체들의 가치가 생명 공동체의 가치보다 중요하다.
- 을(칸트)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의 가치가 생명 공동체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들의 가치는 생명 공동체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 병(레오폴드)은 생명 공동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생명 공동체를 위해 생명체를 희생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ㄷ은 레오폴드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ㄹ. D: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

- 갑(테일러)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인간은 생명체를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 을(칸트)은 인간의 존속이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ㄹ은 테일러, 칸트,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② ㄱ, ㄷ이다.

오답 **틀렸나?**

칸트는 이성적 삶의 주체를 제외한 다른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 주체와 대상을 혼동했다면 정답을 맞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1회 연도별 모의고사 2023 실시 3월 학력평가

1회 01 정답 ⑤ ✱ 메타 윤리학 ····· [정답률 84%]

| 선택지 분석 | A 11 해설 참조

①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선악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등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를 분석한다.
②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③ 이론 윤리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과 규범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둔다.
④ 기술 윤리학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⑤ 실천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회 02 정답 ④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정답률 80%]

| 보기 분석 | W 19 해설 참조

ㄱ.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가 다수의 주장을 포함한 모든 주장에 대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등의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ㄴ.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규범만이 타당하다고 본다.
ㄷ.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는 개인적인 이익, 소망, 견해, 감정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담론 참여자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합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고, 비판받은 사람은 비판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꿀팁
ㄹ.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는 담론에서 합의한 내용이 가져올 결과와 부작용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에 임한다.

1회 03 정답 ② ✱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 [정답률 89%]

| 선택지 분석 | F 15 해설 참조

① 갑(에피쿠로스)은 죽음을 감각의 상실로 보고, 죽음이 어떠한 쾌락이나 고통도 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죽음은 최고의 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② 갑(에피쿠로스)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석가모니)은 연기법을 깨달으면 자아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석가모니)은 윤회를 생사가 되풀이되는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생사의 고통은 윤회 속에서 반복된다.
⑤ 갑(에피쿠로스)은 죽음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소멸한다고 보고 내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을(석가모니)은 내세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내세의 삶 또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본다.

1회 04 정답 ⑤ ✱ 형벌관 비교 ····· [정답률 55%]

| 선택지 분석 | L 11 해설 참조

① 갑(칸트)은 사형이 살인범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갑(칸트)은 범죄자가 형벌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 즉 범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병(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개인은 자신의 힘, 신체, 자유 등을 모두 사회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일반 의지를 형성하며, 이러한 일반 의지가 형벌권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의지를 거스른 살인범은 사회 계약의 위반자이므로 사형되어야 마땅하다. 꿀팁
④ 을(베카리아)은 강도가 높은 사형보다 지속도가 높은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갑(칸트)은 형벌을 사회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병(루소)은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1회 05 정답 ③ ✱ 톨스토이와 와일드의 예술관 ·· [정답률 84%]

| 선택지 분석 | S 09 해설 참조

① 갑(톨스토이)은 예술가의 감정이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공동체의 단합이 실현될 수 있다.
② 갑(톨스토이)은 모든 인간 사회에는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인생관이 존재한다고 보며, 이를 '종교적 자각'이라고도 한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이 신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는 종교적 자각에 바탕을 둔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③ 을(와일드)은 예술이 사회적 역할이나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④ 을(와일드)은 예술이 자유롭게 예술적 가치의 실현에만 몰두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톨스토이)은 예술이 아름다움 외에도 사랑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을(와일드)은 예술이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1회 06 정답 ② ✱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 [정답률 81%]

| 선택지 분석 | F 42 해설 참조

① 갑, 을 모두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명 치료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제시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연명 치료 중단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이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② 갑은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을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모두 도덕적이라고 본다.
두 사람의 입장이 나뉘는 물음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③ 갑, 을 모두 연명 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 모두 환자가 요청했을 때 연명 치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 치료의 중단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⑤ 갑은 소극적 안락사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을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회 07 정답 ⑤ ✱ 원조에 대한 입장 ····· [정답률 31%]

| 선택지 분석 | Z 45 해설 참조

ㄱ. 갑(싱어)은 원조는 누군가의 소유물을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조 주체에게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을(롤스)은 원조의 의무를 원조 대상이나 원조 주체가 획득할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ㄱ은 갑(싱어), 을(롤스) 모두 부정할 진술이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갑(싱어)은 원조를 헛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원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을(롤스)은 빈곤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제도를 갖춘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ㄴ은 갑(싱어), 을(롤스) 모두 긍정할 진술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갑(싱어)은 여성 교육을 거부하는 국가처럼 원조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원조의 우선도가 낮다고 본다. 을(롤스)은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국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원조를 결정할 때 대상국의 정치 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ㄹ. 갑(싱어)은 절대 빈곤의 해소가 원조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한다. 을(롤스)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한다.
ㄹ은 갑(싱어)은 부정, 을(롤스)은 긍정할 진술이므로 **C**에 해당한다.

1회 08 정답 ② ∗ 성에 대한 입장 ····· [정답률 90%]

| 선택지 분석 | **H** 21 해설 참조

① (가)는 성적 행위의 결과이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출산과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만 도덕적 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가)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결혼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 정당화된다고 본다.

③ (나)는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④ (나)는 인격 존중의 의무를 준수하는 한, 결혼이나 사랑에 구애받지 않은 관계에서도 자유롭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⑤ (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인격을 존중한 성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인격 존중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도덕적 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1회 09 정답 ④ ∗ 노직과 롤스의 분배 정의 · [정답률 52%]

| 보기 분석 | **K** 37 해설 참조

ㄱ. 갑(노직)은 도덕적 공과(功過)와 같은 고정된 기준에 근거한 분배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정형적 원리에 근거한 분배는 특정한 분배 상태를 정의롭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ㄴ. 갑(노직)은 재화가 양도될 때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부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함정
강제나 사기와 같은 부정의한 방식에 의해서도 재화가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의해 재화가 양도될 수도 있다.

ㄷ. 을(롤스)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더라도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ㄹ. 갑(노직)은 역사적으로 발생한 부정의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정의 원칙을 주장한다. 을(롤스)은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정의를 국가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회 10 정답 ① ∗ 사회 계약론에 대한 입장 · [정답률 43%]

| 선택지 분석 | **M** 21 해설 참조

① 갑(홉스)은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각자는 자기 보존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덕적 선악, 옳음과 그름, 정의와 불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② 갑(홉스)은 사회 계약을 통해 수립된 군주(주권자)가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고 본다. 반면, 시민은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③ 을(로크)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매우 불안정하게 향유한다고 본다.

④ 을(로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갑(홉스)은 군주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정권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함정
을(로크)은 정부나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신탁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러한 정부나 입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본다.

1회 11 정답 ① ∗ 벤담의 공리주의 ····· [정답률 70%]

| 선택지 분석 | **C** 15 해설 참조

① 벤담은 어떤 행위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옳고, 감소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유용성의 원리(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기준으로 내세운다.

② 벤담은 법안이 가져올 결과적인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의무 의식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벤담은 기술이 야기할 해악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벤담은 기술이 활용되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고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벤담은 개인의 이익(사익)과 사회의 이익(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익을 공익에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익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벤담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 또는 행위자 자신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함정

1회 12 정답 ⑤ ∗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 [정답률 91%]

| 선택지 분석 | **I** 48 해설 참조

①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면 마땅히 청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약용은 공직자가 스스로 검소하게 행동한다면 절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공직자는 스스로 자신이 입을 의복과 먹을 음식을 절제하며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③ 정약용은 공직자가 법과 백성을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사욕을 내세우기보다는 법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백성의 편안함을 우선할 것이라고 본다.

④ 정약용은 공직자가 공무를 처리할 때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정약용은 공직자가 스스로 몸가짐을 절도에 어긋나지 않게 다스린다면, 저절로 위엄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즉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게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어려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면 백성들이 저절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본다.

1회 13 정답 ③ ∗ 칸트와 갈퉁의 평화관 ·· [정답률 63%]

| 선택지 분석 | **Y** 22 해설 참조

① 갑(칸트)은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한낱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 등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② 갑(칸트)은 타국에 방문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을(갈퉁)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 폭력의 삼각형이 사라져야만 진정한 평화(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차 례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 1등급 대비 개념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01. 윤리학의 구분 ····· 02
0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 04

Ⅱ 생명과 윤리

03. 죽음과 윤리 ····· 06
04. 사랑과 성 윤리 ····· 09

Ⅲ 사회와 윤리

05. 동서양의 직업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0
06. 니부어의 사회 윤리 ····· 12
★07. 다양한 분배 정의관 [1등급 대비] ····· 14
08. 교정적 정의와 사형 [2등급 대비] ····· 22
09. 시민 불복종 [2등급 대비] ····· 26

Ⅳ 과학과 윤리

10. 과학 기술과 가치 중립성 ····· 28
11.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 ····· 30
★12. 자연과 인간의 관계 [1등급 대비] ····· 32

Ⅴ 문화와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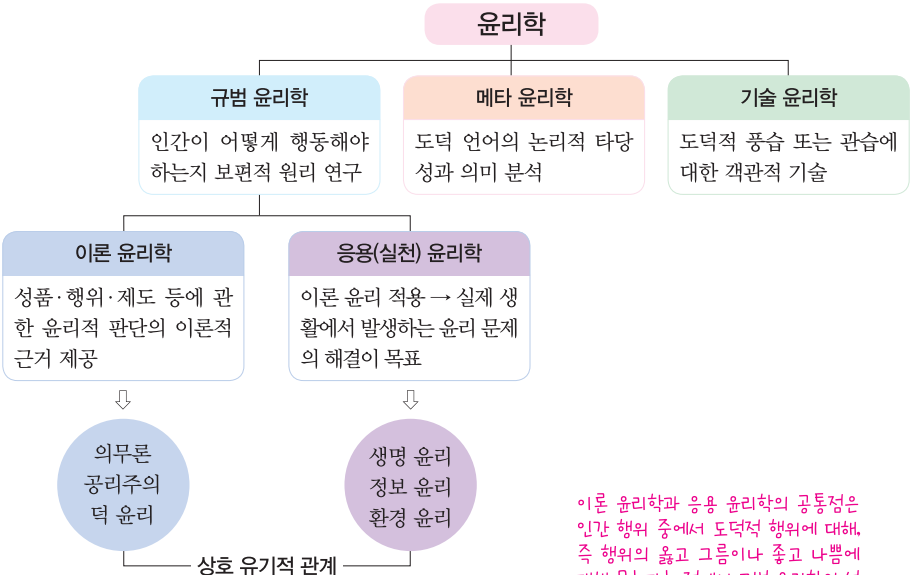
13. 예술과 윤리 ····· 40
14.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 ····· 41
15. 종교와 윤리 ····· 42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16. 소통과 담론 윤리 ····· 44
17.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 [2등급 대비] ····· 46

01 윤리학의 구분

★ 윤리학의 종류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의 공통점은 인간 행위 중에서 도덕적 행위에 대해,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규범 윤리학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와 실천 능력의 향상을 지향한다.

★ 각 윤리학의 관심 분야

응용(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예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목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함 예 특정 공동체의 도덕적 관습 조사

★ 문제 풀이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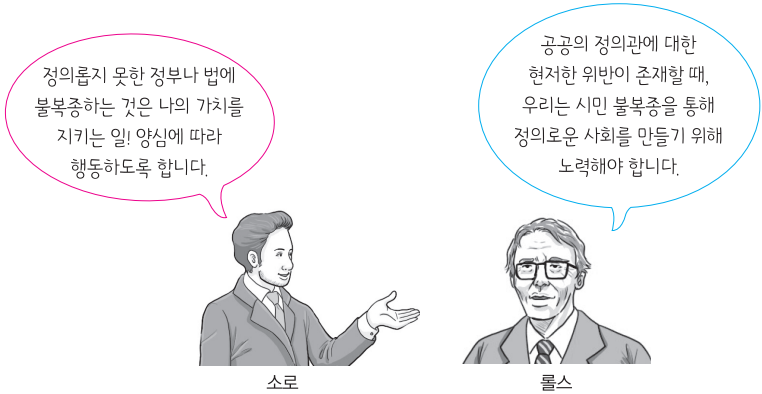
최근에는 응용(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혹은 응용(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 묶여서 출제된다. 따라서 각 윤리학을 대표하는 표현을 기억해 두면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말하는 윤리학의 종류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고민은 응용(실천) 윤리학, 언어의 명료함 혹은 논리적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고민은 메타 윤리학, 경험 과학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속한다.



나만의 비법 정리

09 시민 불복종

✪ 2등급 대비



★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소로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소유할 권리가 있는 단 하나의 의무, 그것은 곧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때이건 행사하는 것이다." • 헌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저항의 최종 판단의 근거임 •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법에 복종하지 말아야 함
롤스	•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행해져야 함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법에 대한 충실성, 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 공개적, 비폭력적, 처벌 감수 •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강조하는 원칙인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모두 부유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할 수 있음

★ 문제 풀이 꿀팁

생활과 윤리의 킬러 주제이다.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빠짐 없이 등장한다. 이 단원은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되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다. 롤스가 언급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법에 대한 충실성, 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 공개적, 비폭력적, 처벌 감수)은 꼭 알아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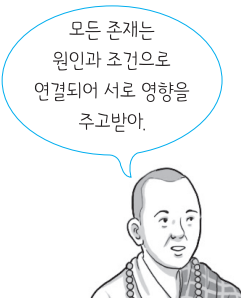
나만의 비법 정리

12 자연과 인간의 관계 ✪ 1등급 대비

1 동양의 자연관



공자(유교)



불교 사상가



장자(도가)

★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유교	불교	도가
•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함 •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봄	•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 불살생의 계율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 등은 환경친화적 사상을 갖는 데 도움을 줌	•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봄 • 무위자연을 추구하여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함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모든 존재는 나의 부모로, 그들을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해치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다."	"진인(眞人)은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	⬇	⬇
하늘을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함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서 비롯된 사랑인 자비의 실천을 강조함**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함**

★ 동양의 자연관 특징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은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에서 비롯된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

2 서양의 자연관

★ 인간 중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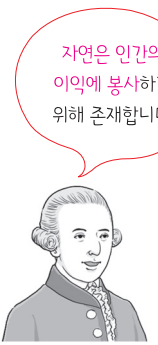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입니다.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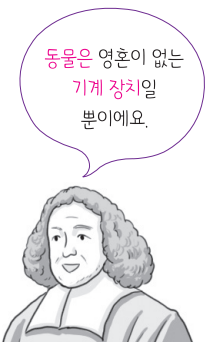
인간 중심주의 대표 사상가 **칸트**



아퀴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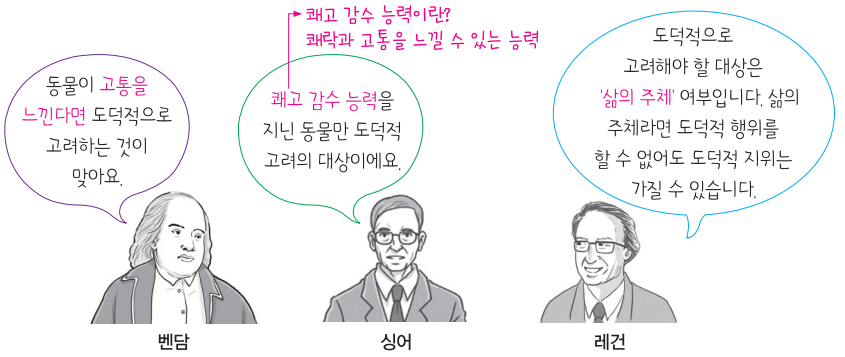
베이컨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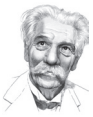
입장		• 도구적 인간관 •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
대표 사상가	**아퀴나스**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음
	데카르트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 → 자연은 단순한 물질이며 하나의 기계에 불과함
	베이컨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자연을 정복할 지식 강조
	칸트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의 주체임(인간 이외 존재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 지님 – 동·식물, 광물)
의의 및 한계		• 의의: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림 •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지배 정당화

★ 동물 중심주의



입장		• 감정 중심주의 • 동물도 쾌고(快苦)를 느끼는 존재 →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
대표 사상가	벤담	동물을 대우할 때 고려할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임
	싱어	공리주의에 근거 → 이익 관심(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함)을 가진 동물을 인간과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종 이기주의에 해당
	레건	의무론에 근거한 동물 권리론 주장 →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도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
의의 및 한계		• 의의: 동물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 • 한계: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 미흡

★ 생명 중심주의



슈바이처



테일러

입장		•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님 •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 → 인간 중심주의 탈피
대표 사상가	슈바이처	도덕의 근본 원리는 '생명 외경' → 생명을 유지·고양하는 것은 선(善), 파괴·억압하는 것은 악(惡)
	테일러	•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생명의 목적성'을 추구함(목적론적 삶의 중심) • 생명체에 대한 의무: 악행 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의의 및 한계		• 의의: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일깨워줌 • 한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인간 및 비인간 생명의 복지와 번영은 그 차제로 가치를 지닙니다.



네스

입장		전일론적 관점 →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
대표 사상가	레오폴드	• 대지의 윤리: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을 포함하여 대지까지 확대,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 •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 중시
	네스	심층 생태학: 인간이 자연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의식, 더불어 살아갈 때 '큰 자아실현' 가능
의의 및 한계		• 의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각 필요를 일깨워 줌 • 한계: 전체를 위한 개별 존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

★ 서양의 자연관에 있어 도덕적 고려 범위

생태 중심주의



물, 대지, 공기, 흙 등 모든 생태계

생명 중심주의



생명체는 모두 포함

동물 중심주의



싱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고려
레건: 삶의 주체인 동물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 문제 풀이 꿀팁

생활과 윤리 전 영역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다.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탈인간 중심 내에서의 입장 차이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레건과 싱어를 함께 비교해야 했던 2021 6월 모평 문제의 정답률은 43%에 불과하다.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해 정리해 두자!



나만의 비법 정리

16 소통과 담론 윤리



하버마스

어떤 규범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 폭력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 소통과 담론에 관한 동서양 윤리

공자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통해 조화를 강조함
맹자	소통을 방해하는 그릇된 언사로 피사(편협한 말), 음사(음탕한 말), 사사(간사한 말), 둔사(회피하는 말)를 제시하여, 진실하고 바른 말을 강조함
장자	옳고 그름은 도(道)의 입장에서 다르지 않음. 차이에 대한 인정과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함
원효	화쟁(和諍) 사상: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통합할 것을 추구함
밀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는 토론을 강조함
아펠	• 보편적 윤리 규범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고, 인격의 상호 인정을 강조함 • 합의를 위해 담론에 참여해야 할 책임과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강조함
하버마스	• 담론 윤리를 강조함 •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함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상적 담화 조건을 제시함

★ 문제 풀이 꿀팁

각 사상가의 주장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꼼꼼히 공부해두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대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다양한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만의 비법 정리